

이탈리아의 파비오 칸나바로가 5일 도르트문트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축구 준결승전에서 2-0 승리를 확정짓자 두 팔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패’가 ‘창’보다 강했다

이탈리아, 연장막판 1분새 2골...獨 제압
1982년 대회이후 24년 만에 정상 도전

‘아주리군단’ 이탈리아가 ‘전차군단’ 독일을 극적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이끄는 이탈리아는 5일 도르트문트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축구 준결승에서 연장 후반 14분 터진 파비오 그로소의 결승골과 1분 뒤 알레산드로 델피에로의 추가골로 개최국 독일을 2-0으로 제압했다.

이탈리아는 오는 10일 오전 3시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1982년 스페인월드컵 이후 24년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전후반과 연장을 합친 120분의 혈투는 마지막 ‘기적의 1분’에 승부가 갈렸다. ‘11m 퐁 팻 게임’ 승부차기로 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 극적인 선제 결승골과 추가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수비수 그로소와 연장전에 교체

투입된 백전노장 델피에로였다. 왼쪽 윙백 그로소는 경기가 득점없이 끝날 것 같던 연장 후반 14분 공격에 가세해 안드레아 피를로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찰리준 전진패스를 받자마자 왼쪽으로 몸을 틀어 반대쪽 골문을 겨냥했다. 그로소의 왼발 터닝슛은 키 높이로 날아들어 골게 잠겨있던 전차군단 골문 왼쪽 구석을 정확히 꿰뚫었다. 독일이 선제골을 얻어맞고 넋이 빠진 사이 델피에로가 마무리 권치를 날렸다. 델피에로는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문전으로 대시하며 그림같은 오른쪽 인사이드슛으로 네트를 흔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탈리아 미국전 실점 후 453분 무실점 독일 도르트문트 불패신화 막 내리

개최국 우승을 장담했던 ‘전차군단’ 독일이 아주리 군단의 ‘카테라치오(빛장수비)’ 앞에 고개를 떨궜다. 독일은 ‘창’, 이탈리아는 ‘방패’ 라지만 5일 새벽 열린 독일 월드컵 준결승전은 이러한 공식도 철저히 무시됐다. 오히려 전체 슈팅수에서 15대 13, 유효슈팅수는 10대 2로 이탈리아가 압도했다. 볼점유율도 57%대 43%로 우세했다.

▲축축한 그물망 빛장수비
이탈리아는 준결승 독일전에서 2-0 승리를 거둬으로써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1득점, 1실점을 기록했다. 유일한 1실점도 지난달 18일 미국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크리스티안 차카르도(팔레르모)의 자책골이었다.

이탈리아는 상대 공격수에게는 단 한번도 골문을 허락하지 않은 셈이다. 미국전 실점 이후에는 453분 무실점 행진을 펼치고 있다.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포백(4-back) 라인은 독일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왼쪽 윙백 파비오 그로소(팔레르모)와 중앙 수비수 듀오 파비오 칸나바로(유벤투스), 마르코 마테라치(인테르밀란), 오른쪽 윙백 잔루카 참브로타(유벤투스)로 구성됐다. 독일전에서 나타난 이탈리아 수비의 강점은 강인한 대인마크 능력과 효과적인 간격 유지,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협력 수비에 있었다.

▲무너진 전차군단의 눈물
경기 시작 전만 해도, 아니 연장 후반 14분 이탈리아 수비수 파비오 그로소의 결승골이 터지기 전만 해도 독일 팬들은 자국의 결승행을 의심치 않았다. 연장전까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0의 행진이 계속돼도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었다. 내심 승부차기를 기대하는 눈치도 보였다. 독일은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전까지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모두 4차례 승부차기를 해 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꿈은 연장 후반 종료 직전 산산이 조각났다. 그로소에게 치명타를 얻어맞은 뒤 1분만에 다시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에게 추가골까지 내줬고, 경기는 델 피에로의 골 세리머니와 함께 바로 끝이 났다.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14차례의 A매치에서 13승1무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독일 대표팀의 ‘도르트문트 불패 신화’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독일보다 수준 높은 경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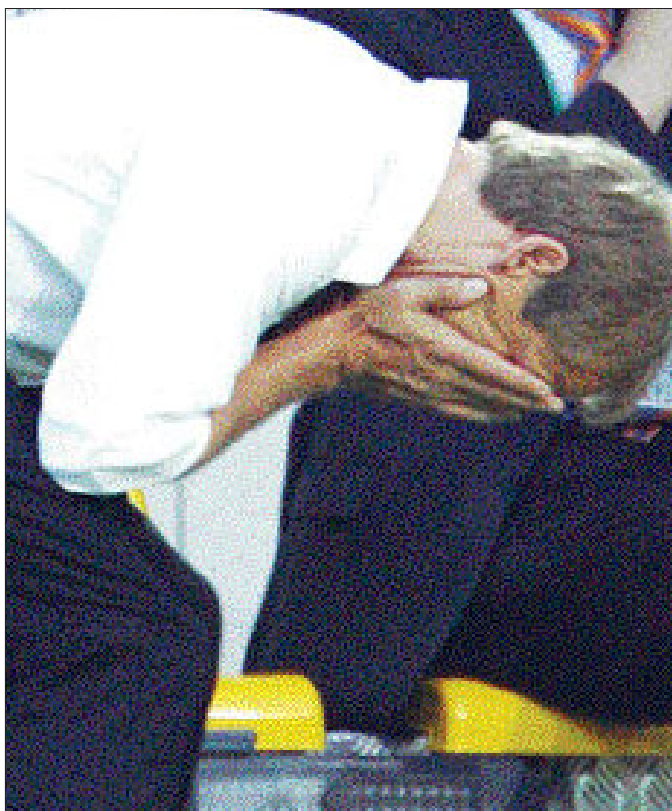
◀ 이탈리아 리피 감독

“우리가 독일보다 높은 수준의 경기를 했다. 독일은 이날의 패배에 불평할 게 없다”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를 결승에 올려 놓은 마르첼로 리피(58) 감독은 먼저 “꿈만 같다”는 말로 승리의 기쁨을 전했다. 리피 감독은 5일 4강전 승리 후 인터뷰에서 “매우 힘든 경기였다”면서 “꿈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정말 이겼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는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고 생각한다. 막판에 몇 가지 모험을 걸었고,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리피 감독은 연장전에 공격수 빈첸초 이아퀸타와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고 그대로 적중했다. 그는 “우리는 독일보다 한 수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우리 선수들은 자신감에 넘쳤고 볼 점유율도 개최국 독일은 불평할 게 없다”고 승자의 여유를 보였다. 리피 감독은 또 “누가 결승에 오를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어떤 팀이 올라오더라도 상관없다”며 우승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우리의 승리 의심치 않았는데”

독일 클린스만 감독 ▶

아르헨티나와 8강전에 이어 알프레드 히치콕의 스릴러물을 다시 한번 만끽하려던 위르겐 클린스만(42)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의 꿈이 깨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5일 열린 2006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4강 이탈리아전에서 연장 후반 종료 직전 내리 두 골을 내주며 0-2로 패한 뒤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끝나기 2분 전까지도 우리는 결승행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는 뛰어난 재능과 많은 어린 재목들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코스타리카와 조별리그 1차전부터 이번 대회 매경기에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며 위안을 삼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는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훈련했고 아주 훌륭한 팀을 만들었다. 선수들은 모든 것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물론 팬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 것 아주 좋은 일”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의 공격 축구를 했다”면서 “오늘의 패배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이 독일 대표팀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미하엘 발라크가 5일 도르트문트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축구 준결승전에서 잦은 공격 실수에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